

Dongguk for you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튼튼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패 수상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 2018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의 배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의진료센터 참가 운영과 관련해 전 세계 기자를 대상으로 침, 부항, 추나 요법 등을 시연하고, 취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홍보사업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동국대학교한방병원을 포함해 전국 총 13개 한방 병·의원 소속 24명의 한의사가 홍보 및 운영사업에 참여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수상소감으로 “앞으로도 한국 고유의 우수한 한방 치료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 브랜드인 메디컬 코리아를 알리는 데에 선두주자로서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 김두솔 전공의,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평가시험 최고득점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김두솔 전공의는 최근 2018년도 춘계 전공의 평가시험에서 최고득점을 받아 수상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매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우수성 확인을 위해 평가되는 시험으로 전국 120여 명의 전공의 응시자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수석의 영광을 차지했다. 응급의학과 김두솔 전공의는 “평소 교수님들의 열성적인 지도와 동료 전공의들의 격려가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진료와 학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주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에서는 최근 봄철 야외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SFTS는 주로 5월에서 11월 사이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주로 작은소피 참 진드기)에 물린 후 38~40℃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예방 백신이 없고 보존적인 치료가 주된 치료이나 호흡곤란, 의식저하, 위장관 출혈을 보이는 환자는 중증의 위험이 높으며 합병증으로 뇌수막염, 부정맥 급성신장손상, 심근염, 뇌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SFTS 의심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예방법으로는 야외활동 시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고, 돛자리를 사용하며 돛자리 사용 후에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도록 한다. 또한, 풀밭에서 용변을 보지 않고,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으며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난 뒤 세탁하고 샤워와 목욕을 하고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교직원들을 위한 캔 커피 나눔 이벤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지난 5월 16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출근길 교직원들에게 캔 커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벤트는 조성민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등 10여 명의 보직자가 참석해 정문과 후문에서 출근하는 교직원들을 맞이하며, 준비된 캔 커피를 직접 전달했다. 캔 커피를 전달받은 교직원들은 출근길 이벤트에 즐거운 표정으로 감사를 표하며 화답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올해 초 새해맞이 캔 커피 나눔 이벤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즐거운 직장 내 근무환경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